

휴칠(옷칠)

휴칠은 일본의 칠공예에서 붓이나 주걱을 사용해 옷을 칠하는 기술 중 하나로, 장식 문양을 그리지 않고 옷칠만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의 영역은 단순히 옷을 칠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바탕 형태의 조형, 밀처리, 덧칠, 완성 등의 제작과정 전반을 포함합니다.

17 세기에 이르자 각 번(藩)에서 경쟁하듯 칠기 제작이 이루어졌고,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독특한 칠기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옷칠에 사용되는 도구와 기법도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해 갔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높이 평가되어 휴칠은 1974 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휴칠은 바탕에 직접 옷을 칠하는 방법과 바탕에 밀처리를 한 후 그 위에 옷을 여러 겹 덧바르는 방법으로 크게 나뉩니다. 이 2 가지 방법은 외관뿐만 아니라 내구성, 내열성 등 기능적인 면에서도 완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옷은 다루기 매우 까다로운 소재입니다. 옷의 광택과 뛰어난 내구성은 옷에 포함된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반응은 온도와 습도의 미세한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옷은 여러 번, 때로는 수백 번 덧칠해야 하며, 각 칠 사이에는 옷이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칠할 때마다 연마 공정이 들어가는 기법도 많습니다. 또, 옷이 마르기 전에 먼지나 이물질이 붙어 덧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완성되기까지는 수 개월에서 수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